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클락공항에서 차로 한시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교가 아닌 어학원입니다. 어학원 내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며, 자습실도 있어서 수업 후에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날 레벨테스트를 보고 등수대로 반이 정해집니다. 1:1수업 4시간, 그룹 수업 4시간 총 8시간의 수업이 편성됩니다. 수업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룹 수업 중 토익스피킹은 2번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7개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면 사무실에 얘기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수업이 8시간이라 지루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 모두 흥이 많고 활발하셔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숙제는 거의 없었고 수업 분위기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국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해서 좋았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①요트투어-개인사비X 첫 번째 액티비티는 요트투어를 했습니다. 요트에서 다이빙 하실 분은 수영복이랑 수건 꼭 챙겨가세요. 다이빙 진짜 재밌어요~ ②마닐라투어-개인사비X 마닐라는 수빅보다 공기도 안 좋고 더 습하기 때문에 물이랑 휴대용선풍기 필수입니다! 추가비용은 따로 안들었지만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피곤하므로 전 날 일찍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③안바야코트-1000페소 걸음 마지막 단체 액티비티, 역시나 듣던대로 너무 예뻐했습니다. 팀을 두팀으로 나눠 1000페소씩 걸었습니다. 안에 있는 뷔페에서 밥을 먹었는데 부가세까지 한사람당 약 800페소 정도 들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수영 후에 음료수를 사먹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먼저 논 후 씻고 바다를 나갔는데 노을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수영장도 너무 좋았습니다. 썬베드는 미리 하나 맡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수영복 위에 어떠한 것도 걸칠 수 없고 모자 또한 안됩니다. ④카마얀비치-입장료 500페소, 장비대여 300페소=총 800페소 예정되었던 액티비티는 아니고 1월1일에 학생들끼리 투표해서 갔습니다. 갈 때는 SLC측에서 태워다 주셨고 올 때는 학생들끼리 갔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인데 수영하실 분은 수영복과 수건, 샴푸를 챙겨가야 합니다. 입장료는 수영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500페소이며, 저는 스노쿨링 장비와 구명조끼를 대여했는데 2시간에 300페소였습니다. 어학원과 멀리 떨어져있지 않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 꼭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⑤트리탑어드벤처-500페소+환경보호비 약 3~40페소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학생끼리 갔습니다. 어학원 운동장 앞으로 큰나무들이 있는데 그 곳이 트리탑입니다. 액티비티 개수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저는 2개짜리 선택하고 500페소랑 환경보호비냈습니다. 4개짜리는 900페소로 기억합니다. 환경보호비는 따로 써있지 않으므로 알고계셔야합니다! 3~40페소였던거같아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겨울에 가서 비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더울 것을 예상했지만 기숙사 방 안과 교실은 에어컨이 빵빵해서 괜찮았습니다. 평일에는 낮에 수

	업이 있어 나갈 일이 없지만 주말에 낮에 나갈 때는 햇빛이 매우 매우 뜨거웠습니다. 우산이랑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필리핀이라 위험할 거라는 인식이 강한데 어학원이 위치한 수빅은 매우 안전한 지역입니다. 올롱가포로 나가면 수빅과 분위기가 달라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딱히 위험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주3회 격일로 빨래와 청소를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지냈습니다. 통금은 다음 날 수업이 있으면 10시, 없으면 12시였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어학원 식당은 한식으로 나와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급식처럼 나와서 학창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교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10분전에 일어나도 수업을 갈 수 있습니다. 시내로 갈 때에는 콜택시나 FB를 타고 가야합니다. FB는 편도 13페소(약 260원) 이고, 콜택시는 전화할 때 요금을 물어보고 타야합니다.(목적지와 인원수에 따라 요금이 다름) 필리핀 전체적으로 물가가 싸기 때문에 교통비도 부담이 없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43만원(400달러)	약 2만페소(식비,기념품,주말활동,출국세)
카드	2만원	페소 다 써서 카드로

		결제(기념품)
합계	1,089,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생님 선물 꼭 사가라고 했는데 안사간걸 진짜 후회했어요. 필리핀에서는 딱히 선물이라고 드릴 만한게 없더라고요..선생님들이 다 필리핀분들이시니까요. 만약 저는 다시 갈 때 선물을 사간다면 한국에 관련된 티셔츠같은 거 드리고 싶어요!

저는 400달러를 들고 가서 300달러 먼저 환전했는데 필리핀 물가가 너무 싸서 막 쓰다가 100달러 더 환전하고 나중에는 카드까지 긁었습니다..! 어학원 이사님 말로는 100달러씩 환전하는게 환율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야외는 매우 더우니 휴대용 선풍기 꼭 챙겨가세요! 노트북은 딱히 쓸일이 없습니다..! 뮤직비디오 영상 편집 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팀들 보니까 아이폰 어플인 '아이무비'로 편집하더라고요! 노트북을 원래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면 가지고 오는게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가져갔단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단어장은 단어수업에서 주는 단어책이 있으므로 딱히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멀티탭 챙겨가시면 진짜 편해요!!!저희 방은 두명이 챙겨와서 한 개는 책상있는 곳에 두고 쓰고 한 개는 침대있는 곳에 연결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폐소가 필요 없어서 폐소를 다 쓰고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서 아무것도 못 사먹었습니다. 새벽비행기 때문에 진짜 배고프므로 밥값으로 200페소씩은 빼놓고 공항에서 밥 사먹는거 추천합니다. (카드결제가 되는곳이 있지만 밥집 아니고 웨이크 같은거 파는 카페임)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는 4주가 굉장히 길 것 같았는데 1주가 지나자마자 엄청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특

히 저는 아는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걱정했는데 결국 다들 친해집니다! 걱정하지마세요!!

4주 동안 제가 얻은 것은 '자신감 향상'입니다. 원래 영어회화 실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약간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기회로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 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업이 8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섯시 반에는 일어나야 해서 아침수업시간에는 좀 피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사람들 만나서 4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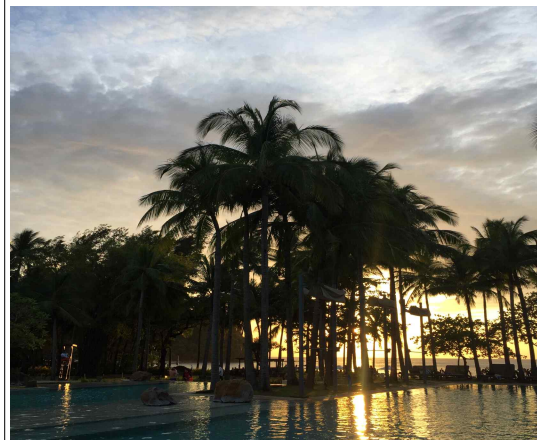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투어



카마얀비치



마닐라투어	안바야코브
	
바베큐파티	졸업식